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이 오계를 설하고 수계대중을 축원했다.


수계대중인 대학생들은 오계 엄수를 다짐하고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건학위원회는 11월 12일 교내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1800여 동국대 재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대중스님들이 연비 대신 단주를 전해주고 있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들이 수계대중을 대표해 계첩을 수여받았다.

1800여 동국대 WISE캠 학생, "부처님 법 지키겠습니다"

동국대 WISE캠 'Young Camp' 개최
학생기획단, 청년 눈높이 맞춰 기획
1800여 학생 수계 통해 불자로 거듭
돈관 스님 "오계 실천 바른 삶" 당부

경주 · 글=김가령 기자, 사진=하성미 기자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동국대 WISE캠퍼스(이하 와이즈캠퍼스)의 1800여 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는 11월 12일 교내 문무관에서 '2024 WISE Young Camp-Festival with Buddhism(이하 영캠프)'를 개최했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청년 전법 원력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청년 불자 양성 프로젝트다.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학생들로 이들에게 불교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 어울림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에서 열리는 첫 영캠프이자 학생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의미가 배가됐다. 학교 불교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은 잠재적 청년 불자 발굴을 목표삼아 젊은 세대를 위한 'Young한 불교'를 주제로 행사 전반을 기획했다. 학생들은 10월 초부터 진행된 회의를 통해 불교동아리 별 슬로건을 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방안 등을 구축해갔다.

한 자리에 모인 재학생 1800여 명은 수계법회를 통해 청년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했다. 수계법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갈마사를,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교수사를 맡았다. 또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유진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혜명 스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대한불교서명종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증사로 참석했다.

전계대화상 돈관 스님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의 청년 1800여 명이 수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에 감동을 표할 길이 없다"며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수계대중에게 계의 중요성을 설했다. 돈관 스님은 "오계란 불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라며 "오계 수지를 통해 바른 삶을 실천할 것을 서원하고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대중에게 불자로서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주경 스님은 "여러분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마음 속에 내재한 불성을 일깨우는 방아쇠를 당겼다"며 "앞으로 여러분은 스스로가 세운 원을 이룰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정진해나갈 일만 남았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도 학생들이 불자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류 총장은 "영캠프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원력이 대단함을 알고, 동국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받침대가 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겠다"고 전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 퀴즈대회 참여중인 학생들.


(왼쪽부터) 학생기획위원 김승배, 박지수 학생.

돈관 스님은 △산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자비심을 가질 것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복과 덕을 지을 것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킬 것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할 것 △술과 같은 중독성물질을 가까이하지 않고 맑은 지혜를 가질 것 등의 오계를 수계대중인 대학생들에게 설하고 불자로서 자세를 강조했다.

수계대중은 "수계받는 저희들은 다섯 계율을 잘 지키는 불제자가 되겠다"며 그간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계를 수지한 수계대중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연비를 받았다. 불자로서 초발심을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연비 의식은 장소 관계상 단주 수여로 대체됐다. 의식에는 불교대학 강사스님들과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학인스님 등 대중스님 90여 명이 참여했다.

연비 의식을 마친 이들에게는 계첩이 수여됐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들인 김승배(간호대학 불교동아리 '메따' 회장) 학생과 박지수(학생기획위원단 부단장) 학생이 대표로 계첩을 받았다. 각각 광선(光善), 가성행(家聖行)이라는 법명을 받은 두 사람은 불자로서 오계를 엄수할 것을 다짐했다.

김승배 학생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설한 오계를 삶의 중심이자 방향으로 삼고 앞으로 삶의 잘 일궈나가고 싶다"며 "타의 모범으로서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치에 맞게 노력하겠다. 학생일 땐 학생으로서, 사회인일 땐 사회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계첩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박지수 학생은 젊은 세대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길 바랐다. 박 학생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직까지도 불교를 딱딱한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올곧은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면서 "모두가 청정한 오계를 기준을 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의지를 가진 청정하고 행복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발원문 봉독을 이어간 대중들은 "앞으로 저희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자비광명 아래 살 것을 다짐한다"고 서원했다.

수계를 받은 학생들은 수계법회에 이은 2부 어울림 한마당과 3부 뮤지션 공연에서 가수 하하, 뉴진 스님이 무대에 오른 축제를 즐기며 불자로 거듭난 하루를 기념했다.

한편,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는 2023년 12월부터 연이어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설립되며 청년 포교의 전두기지로 도약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내 불교동아리는 부루나(불교문화대), 바라너지(스마트시티융합대) 다르마(글로벌사회경영대), 메따(간호학과), 심우회(한의학과) 등이 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2024년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귀의삼보하옵고,
석림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총회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상록원** 3층 (정기총회 이후 저녁공양)

안건 |
-. 석림동문회장 추대의 건
-. 기타안건
• 자랑스러운 동문인상 수상
• 석림동문회 장학금 수여
• 재무보고

석림동문회 회장 돈관

※ 저녁공양을 상록원에서 준비하고자 하오니, 동참하실 스님께서는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참석여부를 사무국 간사(010-9054-9632)에게 미리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